

책의 제목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이 참 궁금해졌다. ‘삶으로 선교한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한다.’와 같은 내용들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이영 선교사님은 오랜 기간 선교사로 사시면서 어떻게 이 말을 느끼시고 담아내셨을까 궁금했다.

선교사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한 사명을 받고 강한 몸과 마음으로 외국에 나가 힘든 환경에서 곳곳이 멋지게 사역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떠올렸다. 하지만 TMTC를 겪으며 느낀바 중 하나는, 선교사님들도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단단한 마음과 의지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을 던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단단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지만 처음부터 뭔가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더불어 살며 강하기도 약하기도 즐겁기도 슬프기도한 삶을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삶을 통해, 말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힘을 합쳐 사역을 이끌어간다. 어떻게보면 선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뿐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이곳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선교사라고 많이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가 참 맞다. 생활하는 곳이 다를 뿐 해외선교사나 나나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선교사의 삶이다.

책에서 선교사님이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있다. 선교사만의 특별한 일도 있었지만, 평범하게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식당에서 외식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나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발견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여러모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에 소홀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